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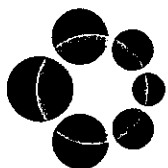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2014. 12

Q&A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허위표시·과대광고 (가공식품 원재료의 효능 광고)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부추즙, 브로콜리즙, 익모초 환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부추, 양배추, 익모초 등 원재료에 대한 효능을 고서 등을 인용(질병명 거론하지 않음)하여 광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나요?

※ 홍보 문구 :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고 허약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여성분들의 나쁜 피를 배출시켜 냉한체질을 개선시키게 도와준다. 양배추는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피의 흐름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에 좋고 피부트러블을 개선해준다. 익모초는 부인과 질환에 좋은 약초, 특히 자궁 쪽 순환 장애에 좋다. 동의보감에서는 임신과 산후의 여러 가지 병을 잘 낫게 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고 부인들에게 좋은 약이다. 등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서는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은 유용성의 표현으로 가능하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식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 질병 치료 등의 효과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